

광주 서구를 보선 뜨겁게 달아 오른다

새정치, 조영택·김하중 등 출마선언... 공천경쟁 돌입

천정배 “출마 적극 검토” ... 새누리, 정승 영입 주력

4·29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서구를 선거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가 마무리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공천경쟁이 본격화 됐다. 새누리당도 기존 예비후보 이외에 후보 영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선거무드가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구를 지역위원장인 조영택 전 국회의원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거치면서 축적한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와 민생경제 화생, 지역발전을 위해 공직 생애 경험 모두를 바

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인 김하중 예비후보도 출마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표발 같이에 들어갔다. 또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도 출마표를 던지고 공천 경쟁에 돌입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4·29 광주서구를 보궐선거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경쟁이 어느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천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29 보선은 호남정치개혁과 야당 재구성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면서

“출마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달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천방식과 과정에서 계파가 움직이는 등 구태가 다시 나타난다면 향후 거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면서 탈당 가능성도 시사해 새정치연합 공천경쟁에 완주할 것인지, 중도하차해 무소속 등으로 출마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밖에 김정현 중앙당 부대변인과 신현구 전 민주당 광주서구를 지역위원장 등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에 참여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서구를 보선과 관련된 공천투들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표 등 새지도부가 공천방식 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당 쇄신과 관련해 실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과정

서 광주 광산구의 전략공천으로 큰 후유증을 겪은 터라 출마예정자들이 이번 보선의 공천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부가 4·29 보선에 대한 공천을 방법과 공정 경선 여부 등에 따라 탈당과 국민모임행, 무소속 등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지각변동이 일어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조준성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 조준성 전 사무처장과 김교진 당 중앙위 행정자치분과위원이 공천 신청을 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승 처장의 영입을 위해 이들에 대한 공천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기자 노트

‘21세기 연금술’ 문화산업, 광주는?

정부가 연초부터 국정기치인 ‘문화융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밝힌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가 실현되고 있어 여간 반갑지 않다.

정부가 11일 문화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공연, 제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대표 한류 융복합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 시범사업 등 4대 사업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 참가해 “문화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며 관광,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연금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광주시민들은 정부의 문화정책을 받기면서도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비 7000억원이 투입된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등)이 정책순위에서 밀려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 핵심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은 무려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법안의 국회통과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당정이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문화전당을 정부가 직접해야 한다”는 광주지역 사회의 주장과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이 국회에 묶여 있는 탓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문화전당의 운영인력을 선별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전당이 정부의 눈밖에 있는 것으로 비치는 사례는 또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서울주재 한-아세안 센터에 이어 2017년 부산에 건립될 아세안 문화원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 교류가 한층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곧바로 지역 전문가들은 “아세안 문화원이 문화전당 조성효과를 반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다루는 복합공간인 문화전당과 업무영역 등에서 겹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 아쉬운 대목은 지난해 27일 광주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의 행보다. 박 대통령은 산학연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를 살렸고 호남 최대 전통시장이었던 대인시장을 찾았다. 하지만, 대인시장과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문화전당까지는 발길이 닿지 않았다. 문화전당은 무려 10여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문화정책의 결실이자, 현 정부의 문화융성정책을 대표하는 아이콘임에도 말이다.

광주 지역민들은 이런 공교로운 일들이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보는 정부의 시각을 내비친 것이 아닐까 바랄 뿐이다.

/penfoot@kwangju.co.kr

아시아문화개발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

광주에 문을 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제작을 맡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채용 규모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22명, 연구보조원 30명, 보조원 4명 등 57명이다.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자나 문화예술기관 경력자, 자격 소지자, 외국어 우수자, 복수 학위 소지자 등은 우대한다. 계약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근무 시작일은 합격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4대 보험과 법정휴가가 보장된다. 문의 (062-410-3524). /윤영기기자 penfoot@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서 출범 기념 점등판에 점등 톨니 바퀴를 쫓은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콘텐츠 산업은 새 부가가치 창출 21세기 연금술”

박대통령 서울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문화콘텐츠 산업은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곧 상품이 되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며 관광·의료·교육·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연금술’”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 참석, “요즘은 문화와 상품의 합성어인 컬덕트(culduct)라는 말까지 사용될 정

도로 문화와 산업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내세워 국가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저는 문화산업이 우리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콘텐츠 분야 최초로 64개 대표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2017년까지 기획·제작·구현·제투자의 선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빅뱅’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남경필 경기지사, 손준식 CJ그룹 회장, 콘텐츠분야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음악·패션·음식·게임 등 문화콘텐츠 대표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 등 64개 기관이 참여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 4개 분야 8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날 개관한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콘텐

츠 기획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콘텐츠 창작과 제작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올해 말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건물에 조성할 계획인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 분야의 신생 및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공동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실과 제작시설을 제공한다.

내년 말에는 흥릉 KIET 부지에 연구개발(R&D), 인재육성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조성한다. 또 2017년 말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CJ 주도의 민간 컨소시엄이 1조원을 투자해 기성 ‘케이 컬처 밸리’(K-Culture Valley)를 조성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낙연지사, 광양 이전 기업 방문 ‘현장 행정’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 이후 매일 전남 도내 사업 현장 및 산업단지 등을 한 곳 이상 찾은 ‘현장 중심 행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나주 조선검역 역사고도 관광자원화 현장, 10일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F1경주장 인근) 고성농자동차핵심기술연구개발센터 건립공사 현장 등에 이어 11일에는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이전해온 기업체의 공장 건립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했다.

특히 이날 방문한 기업들은 경남권에서 전남에 찾아온 유망중소기업들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지표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사가 전격적으로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광양국가산업단 명당 지구에 1135억원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울촌1산단에 117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인 (주)대성철강과 (주)동원중공업 공장 건립 현장을 둘러봤다.

호남권 최초로 현장 생산공장을 건립 중인 (주)대성철강은 부산에서 광양으로 이전했으며, 공장 현장 인력 85명 중 순천폴리텍대학에서 70여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주)동원중공업은 전통기, 발전기 철심 및 금형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매출 130억원이 예상되는 기업이며, 역시 창원에서 이전해와 100여명의 인력 대부분을 지역 인력 양성기관에서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기기자chadol@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i.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수강 기간
모집 인원	▶ 30명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GOChina 중국 전문 인력양성

www.gochina.co.kr

입학상담문의

233-9582 (중) 구오팔리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